



나의 로스 앤젤레스

이근미 장편소설

독후
활동지

미래인

◆책 소개

‘또 하나의 가족’이라는 이야기를 담은 『나의 로스 앤젤레스』는 청소년의 시점으로 바라봐 더욱 선명하고 매력적인 작품이다. 책에서 중심이 되는 가족의 의미는 모두가 공감하고, 되새겨 볼 생각할 거리를 준다.

주인공 해미는 당차고 조잘조잘 말이 많은 아이였다. 하지만 가정의 불화로 중학교 1학년 ‘그룹홈’ 천사의 집에 들어가게 됐다. 그곳에는 일곱 명의 아이와 엄마로 불리는 원장님, 아빠로 불리는 대표님이 함께 사는 곳이었다. 해미는 왜 원장님과 대표님의 호칭을 엄마, 아빠로 부르는지 이해할 수 없다. 현재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자신에게는 엄연히 진짜 엄마와 아빠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인지 천사의 집에서의 생활은 해미에게 힘겹기만 했다. 거기다 큰 아픔을 겪어 원래의 성격을 숨기고, 그저 조용하고 눈에 띄지 않는 아이로 살고 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천사의 집으로 할머니가 찾아오는데?

◆독서 목표

- ① 소설 속 바탕을 이해하며 작품과 인물에 공감할 수 있다.
- ② 작품을 깊이 들여다보며 상징과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 ③ 독후 활동으로 본인의 생각을 전달할 수 있다.



이근미 장편소설
『나의 로스 앤젤레스』

#성장 #가족 #자립 #그룹홈 #버팀목

차례

1. 생각 쌓기
2. 이야기 돋보기
3. 우리 조금 친해요
4. 거울 속의 나
5. 시크릿 데이트
6. 하고 싶은 말
7. 기다리던 서울행?
8. 제자리로
9. 도전! 가로세로
10. 가족의 형태
11. 정민이에게
12. 천사의 집에 놀러 오세요

1. 생각 쌓기

Q1 책 표지 속 배경의 느낌과 아이들이 어떤 기분일지 상상하여 적어 보아요.



Q2 소설 제목 『나의 로스 앤젤레스』는 어떤 의미인 것 같나요?

2. 이야기 돋보기

현관문이 열리면서 평퍼짐한 검정색 원피스를 입은 아줌마와 빨간 바지 차림의 아이가 나왔다.

“어머, 네가 해미구나. 잘 왔다, 우리딸.”

가슴이 툭 떨어졌다. 우리딸, 엄마가 나를 부르던 애칭을 거침없이 구사하며 환하게 웃는 아줌마를 보자 눈물이 핑 돌았다. 시도 때도 없이 눈물이 나오는 것도 엄마와 헤어진 이후 생긴 버릇이다. 엄마와 웃는 모습이 닮은 아줌마가 팔을 크게 벌렸다. 나도 모르게 한 발 뒤로 물러설 때 주무관님이 캐리어를 끌고 내 옆으로 왔다.

“진해미, 이분이 천사의집 김사론 원장님이시다.”

꾸벅 인사하자 원장님이 나를 끌어안으며 볼을 툭툭 두드렸다. 우리딸에 이어 스킨십이라니, 부담스럽기 이를 데 없지만 몸을 빼면 실례가 될 것 같아 잠자코 있었다.

“원장님, 서류 처리는 다 됐어요. 진해미 외할머니 맥과 그룹홈 이 같은 학군이라 전학 안 해도 되고……. 오늘부터 해미를 잘 돌봐 주시면 됩니다. 천사님 케어야 정평이 나 있지만.”

천사님이라는 호칭에 크궁, 또 코웃음이 나올 뻔했다. 천사의집과 천사, 나는 대체 어디에 온 걸까. 하늘나라와 가장 가까운 곳인가. 하긴 돌고 돌아 더 이상 갈 데가 없으니 하늘나라 코앞이 적당할지도 모르겠다. 최대한 소리 내지 않고 한숨을 내쉬었다. _p.9

Q1 주인공 해미가 가게 된 그룹홈의 이름은?

Q2 여러분은 ‘그룹홈’을 알고 있었나요? 어떤 곳인지 조사해 봅시다.

3. 우리 조금 친해요

그날 이후로 준희 일당은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않았다. 대표님에게 감사를 전하자 “빨리 말하지 않아서 섭섭했다.”고 했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너무나 오랫동안 보호받는 기분이 들었다. 정민이에게 말로 하려니 쑥스러워 작은 선물과 함께 편지를 전했다. 수업 끝나고 나가는데 정민이가 기다리고 있었다.

“이런 거보다 말로 고맙다고 해 줘. 니 목소리 좀 듣고 싶다. 진짜.”

“니가 호루라기 불었지? 몇 대 맞으면 어디선가 호루라기 소리가 들려서 참 이상하다고 생각했어. 대표님이 들어와서 호통치실 때 니가 호루라기 불었고, 대표님한테 말했다는 걸 눈치챘어.”

“와, 숨 좀 쉬고 말해라. 이렇게 길게 말할 수 있는 애가 왜 그동안 입 닫고 있었대. 세 명 중 한 명이 1학년 때도 너랑 한 반이었는데 몇 번 말 걸어도 니가 대답을 안 해 단단히 베풀고 있었다더라.”

“고마워.” _p.56

Q1 해미가 정민이에게 마음을 열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Q2 해미처럼 친해지고 싶은 친구가 있나요. 그 친구의 어떤 점이 좋은가요?

4. 거울 속의 나

라희가 들어설 때 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마치 내가 거기 서 있는 듯했기 때문이다. 전미지가 퇴소하면서 생긴 자리에 들어온 5학년 라희는 온통 회색빛이었다.

이곳에 있는 아이들은 대체로 밝았다. 지혜와 한나는 건드리기만 해도 까르르 웃음을 터트렸다. 유리도 가끔 떼를 쓰고 똥굴 때를 제외하고는 늘 환하게 웃었다. 정민이는 시크한 척하지만 늘 실실 웃고 고은영은 대학입시 준비로 바쁘다면서도 백미정 선생님과 하하 호호 하느라 공부는 뒷전이었다. 김사론 원장님과 강요한 대표님에게는 늘 함박웃음이 따라다녔다.

거실에서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데도 라희만 무채색으로 도드라져 보였다. 내 모습도 저러했으리라. 한 방울의 물기도 허용하지 않는 고어텍스처럼 한 점의 웃음기도 없는 얼굴이 완강한 거부감을 내뿜었다. _p.59

Q1 천사의 집에서 해미는 라희를 신경 씁니다. 그 이유를 찾아볼까요.

Q2 해미는 라희가 편하게 잠들 수 있게 어떠한 노력을 했나요? Hint p.143

5. 시크릿 데이트

생일 따위는 아무래도 상관없지만 작은 희망도 없이 꾸역꾸역 지내야 하는 일이 억울하면서 기가 막혔다. 대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아니 왜 살아야 하나. 도무지 답이 떠오르지 않았다. 가슴이 점점 답답해지면서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다. 선생님이 우울한 마음이 2주일 이상 계속되면 우울증일 확률이 높으니 혼자 앓지 말고 주변에 알리라고 했지만 누구에게 말한단 말인가. 원장님한테 말해 봐야 짐만 더 안기는 일일 뿐이다. 하늘을 향해 원망하듯 한숨을 꾸우 내쉬는데 눈물이 귀로 주르르 들어갔다.

“어, 해미야. 우리딸 해미 아냐?”

우리딸? 혹시 엄마가 온 건가? 황급히 돌아보니 원장님이 환하게 웃고 있었다.

“우리딸, 벌써 끝났어? 오늘 장날이라 뭘 좀 살까 해서 나왔는데 우리딸을 만났네. 잘됐다. 나랑 데이트할까? 우리 둘만의 시크릿 데이트.” _p.44

Q1 해미가 조퇴한 날은 사실 무슨 날이었나요?

Q2 해미와 원장님은 시크릿 데이트를 하면서 무엇을 했나요? Hint p.45~46

Q3 원장님이 아이들과 시크릿 데이트를 하는 이유는 뭘까요? Hint p.126

6. 하고 싶은 말

원장님이 케이크 진열장을 가리킬 때 나는 홀린 듯 예전에 엄마하고 먹었던 딸기 케이크를 주문했다. 원장님이 딸기우유생크림 음료까지 골라 줘서 엄마와 함께 딸기 파티 하는 기분이 들었다. “고마워요.”

내가 기어들어 가는 소리로 말하자 원장님이 말했다.

“가족끼리는 고맙다고 하는 거 아냐. 엄마가 더 자주 사 주지 못해 미안하지.”

“엄마는 딸한테 미안하다고 하는 거 아닌데.”

나도 모르게 나온 말에 내가 더 놀랐다.

“맞아, 엄마하고 딸은 고맙다 미안하다, 안 해도 되는 사이지. 이거 먹고 장에 가자. 오늘 오일장이잖아. 장 구경 안 해 봤지? 엄청 재밌어.” _p.45

Q1 원장님은 해미에게 가족이면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그 말은 무엇인가요?

Q2 하지만 오히려 가족이라서 이러한 진심이 담긴 말들을 꺼내기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가족에게 하고 싶었던 말을 생각해 보아요.

7. 기다리던 서울행?

원장님의 우려는 내가 할머니 집에 들어서면서 바로 현실이 되었다. 할머니는 천사의집 앞에서 보인 부드럽고 친절하 모습이라곤 티끌만큼도 남아 있지 않은 얼굴로 나를 맞았다. 다만 할아버지가 아픈 건 사실이었다. 할머니는 “백 세 시대인데 겨우 칠십에 치매 영감탱이가 될 줄 누가 알았겠어. 자식 복 없는 년이 남편 복이라고 있겠어.”라며 한탄했다. 할아버지는 나를 잘 알아보지 못했다. 그러다가도 금방 “아, 해미구나. 해미야 금방 갈 거지? 용돈 줘야 되는데 돈이 어디 있더라.” 하고 찾았다.

할머니가 친절을 가장해 나를 불러올린 이유를 바로 다음 날 알게 됐다. 오후 1시에 방문한 요양보호사가 내 얘기를 들었는지 “네가 해미구나.” 하고 말했다. 아줌마는 그동안 불만이 많았던 듯 나를 보자마자 이야기를 쏟아 놓았다.

“여기는 요양보호사들이 기피하는 집이야. 할머니가 퇴근 전에 안 돌아오기 일쑤니까 누가 오려고 해. 외출 시간이 길어지면 연장한 시간만큼 최저임금을 계산해서 주면 될 텐데 그 돈이 아까워서 너를 부른 게지.” _p.114

Q1 갑자기 할머니가 해미를 찾아간 이유는 무엇인가요?

Q2 내가 해미라면 이 상황을 어떻게 했을 것 같나요?

8. 제자리로

“일어나세요, 창피하지도 않으세요?”

모두 다 뒤를 돌아봤고, 그 순간 가장 놀란 사람은 바로 나였다. 아빠가 온 것이다. 아빠는 원장님에게 죄송하다고 인사한 후 경찰 아저씨와 얘기를 나누었다. 똑똑히 들린 건 “제가 해미 보호자입니다. 저와 해미가 괜찮으면 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집은 어머니가 아니라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어요.”라는 말이었다.

아빠가 할아버지에게 “저분이 집에 침입했어요?”라고 묻자 할아버지가 “아냐, 같이 들어갔어. 해미가 좋은 분이라고 했어.”라고 했다. _p.170

Q1 해미와 할머니, 원장님이 경찰서에 가게 됩니다. 그곳에 나타난 인물은 누구일까요?

Q2 위의 인물이 올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뭘까요? Hint p.159

Q3 그 인물은 해미를 어떻게 도와주었나요?

9. 도전! 가로세로

가로

- ① 해미가 진학하고 싶은 학교
- ③ 원장님과 했던 데이트 이름
- ⑤ 속임수 따위의 묘기

세로

- ② 판다가 좋아하는 음식
- ④ 12월 25일로 성탄절이라고도 부른다

①	②

③	④				
	⑤				

11. 정민이에게

정민의 목소리가 한껏 올라갔다. 정민이가 아픈 마음을 고스란히 도려내고 오롯이 원장님 딸로 살아가길 그 순간 간절히 빌었다. 나는 정민이가 원장님에게 대들고, 집을 나가겠다고 으름장을 놓은 일, 친아빠와 그 의붓아들 때문에 들끓는 마음 같은 건 잊고 천사의집 정민으로만 기억하기로 했다. 원장님도 일부러 모른 채하는데 내가 그걸 떠올리면 안 된다. 까불이 정민이, 나를 위해 호루라기를 불어 준 정민이만 간직하기로 했다. _p.100

Q1 정민이도 자신만의 아픔이 있습니다. 이야기를 읽으며 정민이가 어떤 아이라고 생각했나요?

예) 자신의 감정에 솔직해요.

Q2 하루하루를 멋지게 이겨 내는 정민이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내 볼까요?

미래인 청소년 결작선

- 86 나의 로스 앤젤레스 이근미 지음
- 85 열일곱의 미리보기 쿠로노 신이치 지음 | 이미향 옮김
- 84 소녀 저격수 한정영 지음 으뜸책 선정
- 83 한판 불을 결심 박하령 지음 으뜸책 선정, 한국학교사서협회 추천도서
- 82 조선 판타스틱 잉글리시 신현수 지음 한국학교사서협회 추천도서
- 81 힛트, 하늘을 나는 교실 나토리 사와코 지음 | 이미향 옮김
- 80 플나나 농장의 휴식 선자은 지음
- 79 유명 아이 손서는 지음 한국학교사서협회 추천도서
- 78 덕물풍 이승민 지음 독서평설 프리미엄회 회원 필독서
- 77 안전가옥 코드 코먼 지음 | 이철민 옮김
- 76 인플루엔자 D와 빅 블랙 큐브 제이크 버트 지음 | 채효정 옮김
- 75 초크체리 중학교의 위험한 낙서 고든 코먼 지음 | 김영란 옮김
- 74 어둠의 속도 알렉스 쉬어러 지음 | 윤여림 옮김 학교도서관저널 추천도서
- 73 열네 살 CEO 앤드루 노리스 지음 | 함현주 옮김 한우리가 뽑은 좋은 책
- 72 미녀와 쓰레기통 조앤 오코넬 지음 | 최지수 옮김 학교도서관저널 추천도서
- 71 지니어스 게임 3 레오폴도 가우트 지음 | 박우정 옮김
- 70 핸드폰 없는 2주일 플로리안 부센도르프 지음 | 박성원 옮김 북토크 선정도서, 아침독서 추천도서
- 69 지니어스 게임 2 레오폴도 가우트 지음 | 박우정 옮김
- 68 구름사냥꾼의 노래 2 알렉스 쉬어러 지음 | 윤여림 옮김
- 67 속제 파업 그렉 핀커스 지음 | 채효정 옮김 학교도서관저널 추천도서, 어린이도서연구회 추천도서
- 66 프렌드북 유출사건 토마스 파이벨 지음 | 최지수 옮김 대한출판문화협회 올해의 청소년 교양도서, 어린이도서연구회 추천도서
- 65 구름사냥꾼의 노래 알렉스 쉬어러 지음 | 윤여림 옮김 학교도서관저널 추천도서
- 64 지니어스 게임 레오폴도 가우트 지음 | 박우정 옮김 학교도서관저널 추천도서, 아침독서 추천도서
- 63 어쩌다 대통령 사라 카노 지음 | 나윤정 옮김 학교도서관저널 추천도서
- 62 불량소년, 날다 고든 코먼 지음 | 최제니 옮김 학교도서관저널 추천도서, 아침독서 추천도서
- 61 빅스비 선생님의 마지막 날 존 D. 앤더슨 지음 | 윤여림 옮김 어린이도서연구회 추천도서
- 60 아이를 빌려드립니다 알렉스 쉬어러 지음 | 이혜선 옮김 학교도서관저널 추천도서
- 58 나쁜 학생은 없다 고든 코먼 지음 | 성세희 옮김 아침독서 추천도서, 한우리가 뽑은 좋은 책
- 57 로봇 하트 파드레이그 케니 지음 | 서애경 옮김 아침독서 추천도서
- 56 달가지여 안녕 스텔러트 깁스 지음 | 이도영 옮김 아침독서 추천도서
- 55 스페이스 보이 닉 레이코 지음 | 이재경 옮김
- 54 니나 대장 실종사건 스텔러트 깁스 지음 | 이도영 옮김
- 53 마틸다 효과 엘리 어빙 지음 | 김현정 옮김
- 52 브이로그 조작사건 팀 콜린스 지음 | 김영아 옮김 학교도서관저널 추천도서, 한우리가 뽑은 좋은 책
- 51 2041 달가지 살인사건 스텔러트 깁스 지음 | 이도영 옮김 학교도서관저널 추천도서, 아침독서 추천도서
- 50 로봇 소년, 학교에 가다 톰 앵글버거, 폴 델리저 지음 | 김영란 옮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청소년 권장도서, 한우리가 뽑은 좋은 책
- 49 누구나 떨어진다 제임스 프렐러 지음 | 서애경 옮김
- 48 바다에서 보낸 편지 알렉스 쉬어러 지음 | 이재경 옮김
- 47 트루와 넬 G.네리 지음 | 차승은 옮김
- 45 유명부 알렉스 쉬어러 지음 | 이도영 옮김 학교도서관저널 추천도서
- 43 친구한테 차이기 전 33분 토드 하삭 로위 지음 | 김영아 옮김
- 42 나를 돌려줘 A.S. 킹 지음 | 박찬석 옮김
- 41 하늘에서 돈이 내린다면 프랭크 코트렐 보이스 지음 | 이재경 옮김
- 39 형제는 용감했다 알렉스 쉬어러 지음 | 정현정 옮김
- 38 인터넷 나라의 앨리스 안토에 스틸라트 지음 | 이덕임 옮김
- 35 쓰레기왕 엘리자베스 레어드 지음 | 김민영 옮김
- 34 푸른 하늘 저편 알렉스 쉬어러 지음 | 이재경 옮김 책따세 추천도서
- 33 로봇 소년, 날다 고든 코먼 지음 | 정현정 옮김
- 30 그래도 학교 고든 코먼 지음 | 안지은 옮김 영 리더스 초이스 상 수상작
- 29 컨닝 X파일 크리스틴 부처 지음 | 김영아 옮김
- 28 피그보이 비키 그랜트 지음 | 이도영 옮김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추천도서
- 22 두근두근 체인지 알렉스 쉬어러 지음 | 정현정 옮김 KBS 한국어능력시험 선정도서, 알라딘 추천 우리시대 청소년 도서
- 21 17세 이근미 지음 책따세 추천도서, 한국문화예술평의회 우수문학도서
- 20 두근두근 백화점 알렉스 쉬어러 지음 | 김호정 옮김 간행물윤리위원회 청소년 권장도서
- 19 방관자 제임스 프렐러 지음 | 김상우 옮김 책따세 추천도서, 청소년폭력예방재단 추천도서
- 18 불량엄마 굴욕사건 비키 그랜트 지음 | 이도영 옮김
- 16 통조림을 열지 마시오 알렉스 쉬어러 지음 | 정현정 옮김 학교도서관저널 추천도서
- 14 쌍꺼풀 만나 지음 | 김선희 옮김
- 12 초콜릿 레볼루션 알렉스 쉬어러 지음 | 이주혜 옮김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추천도서, 아침독서 추천도서
- 09 불량엄마 납치사건 비키 그랜트 지음 | 이도영 옮김 캐나다 자작나무상 수상작
- 08 흙으로 슬라이딩 도리 힐레스타드 버틀러 지음 | 김선희 옮김 책따세 추천도서
- 04 트루먼 스쿨 악플 사건 도리 힐레스타드 버틀러 지음 | 이도영 옮김 책따세 추천도서, 독서새물결모임 추천도서, 아침독서 추천도서